형사가 범인 검거하듯 기도하기

(골4:1~6)

1.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2.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3.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4.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5.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6.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형사가 범인 검거하듯 기도하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형사가 범인 검거하듯 기도하기'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중 수사물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미국 드라마 수사물이 CSI 과학수사대, 범죄과학수사대라고 하는 드라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면 많이 나오는 장면들이 있는데, 형사들이나 무장 경찰들이 현장에 나가서 총이나 칼이나, 어쨌든 그 사람을 죽이고 살해할 수 있는 무기로, 중무장한 범인이나 용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입니다.
언제나 동일한 장면이 연출 됩니다마는, 볼 때마다 정말 그 숨 막히는 긴장감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두 손으로 총을 잡지요, 그래 가지고 눈높이로 치켜듭니다, 눈을 크게 뜨고는 총을 바짝 갖다 대가지고, 정말 꼬나보듯이 앞을 보면서 조심스럽게 그 범인이 숨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가택을 방방이 공간을 진입해 들어가면서 수색해 나갈 때, 아! 언제 봐도 긴장감이 돌아요.
문 뒤에 숨어 있고, 벽 뒤에 숨어 있고, 커튼 뒤에 숨어 있고, 벽장 뒤에 숨어 있다가 언제 범

인들이 어디서 무차별 총격을 가해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우들이 하는 겁니다마는 진짜 형사들이 범인을 검거하는 현장도 그렇겠지요.
아! 이때 형사들의 집중력,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 총알이 빵 하고 범인으로부터 날아오면, 그래서 총알이 몸에 박히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의 집중력은, 이건 뭐 어느 순간에 인간이 보일 수 있는 집중력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때 우리가 한 번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서 총을 눈높이로 치켜들고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조심해서 진입해 들어갈 때, 이 형사님의 마음속에 무슨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 식사하는데 아내가 '여보 참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네' '뭐가?' '돈 들어갈 곳은 너무너무 많은데, 당신 월급은 쥐꼬리만 하지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어~'
그 소리를 듣고 나옵니다.
경찰서까지 오는 내내 걱정이 됩니다, 도대체 이 돈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짓눌렸어요.
근데 출동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흉악범이 숨어 있는 집에 가서 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서 방탄조끼를 입고 총을 치켜들고 들어갈 때,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 들어가면서, 이 형사가 '아~ 참, 아내가 돈 때문에 걱정이라 그러는데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해야 될까?' 이렇게 걱정하면서 들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태산 같은 걱정이라도 중무장한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서 진입해 들어가는 순간만큼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라도 잊어버립니다, 가족도 잊어버립니다, 친구도 뭐 부모도 다 망각되는 겁니다.
오직 지금 보이지 않는 범인을 눈에 보이는 자리에 끌어내 가지고 신병 확보를 해야만 하는 것이, 지금 형사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존재이유에요.
다른 생각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형사가, 중무장한 범인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는 집에 진입해 들어가서, 범인을 눈에 보이는 자리에 끌어내고 아니면 눈으로 확인해서, 그 흉악범의 신병 확보를 위해서 진입해 들어가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왜.
대부분의 경우, 아침에 얘기한 아내가 얘기한 그 돈 문제에 마음이 휩싸인 채로 현장에 진입

해 들어가는 형사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중무장한 범인을 찾기 위해서 진입해 들어갈 때.
근데 우리 기도가 그런 겁니다.
무슨 얘기냐?
기도라는 것은 형사가 범인을 눈앞에 색출해 내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대자로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도가 기도답게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이게 안 되면 기도는 없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기도를 어떻게 하냐 하면, 아침에 얘기한 아내의 얘기 돈 문제, 돈 문제를 듣고는 마음이 돈 문제에 휩싸여 있습니다.
휩싸여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돈 문제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대자로 하나님의 신병 확보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독백으로 끝나는 기도를 하고 만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백 날 천 날 드려 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돈 문제를 가지고 밤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형사가 범인을 눈으로 확인하고 신병 확보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병 확보를 하고, 하나님을 마주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밤새 철야기도를 해도.
그냥 나는 내 문제에 휩싸여 있는 채로 있다가 나와 버립니다.
이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아십니까?
우상숭배의 기도입니다.
불상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 다 기도하잖아요? 내 문제 갖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인격적인 상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만 하고 마치고 나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생각이 있으시고, 의견이 있으시고,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분을 상대자로 확보도 못한 채 내 문제에 휩싸여 있는 분위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어떤 기도의 응답이 있냐 하면, 내가 기도했다는 위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아마 잘 될 거라고 하는 희망, 이게 기도응답이에요.
근데, 이런 위로와 이런 희망은 불상 앞에서 백일기도한 사람도 똑같아요.
무당을 불러다가 굿을 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여러분, 불상 앞에서 기도한 사람들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습디까?

무당을 불러다 굿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까?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분야의 전문서적을 읽고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나, 우리가 독백으로 하는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를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나, 확률이 비슷할 걸요?
굿하고 불상에다 기도하고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하고, 책을 읽어서 해결하려 하고, 내가 독백으로 하는 기도, 문제 해결에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에게 자기 최면을 거는 거지요, 기도 했으니까 잘 될 거야.
위로 받고 내 스스로가 나를 속이는 거지요.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심이 없이 창조주로서 들꽃을 키우셨다가 시들게 하시고, 나무를 자라게 하시고, 동식물을 태어나게 하시고 죽게 하시는, 그러한 섭리의 차원에서 내 인생의 문제를 이끌고 가시고 있는 거뿐이지, 인격자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섭리자로서, 우리의 인생에 문제를 주시기도 하고 해결을 주시기도 하는 이 일은, 우리에게나 독백기도를 하는 소위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에게나, 불상 앞에서 절하는 사람들에게나, 굿하는 사람들에게나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왜? 비와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다~ 비추고 계시고 내리고 계시니까.

이건 기독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상대자로서 신병을 확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병 확보가 돼야 됩니다, 기도를 하려면.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는 상전의 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앞에 3장 18절부터 새사람이 가족에 대한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의 말씀과 동일한데, 에베소서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가족관계, 사회 속에서 노예와 종에 대한 관계, 상전에 대한 관계에서 새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나를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 2절부터 '기도를 계속하라'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체의 주제가 기도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가정에서 아내를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자식과 부모를 대할 때, 그리고 사회에서 종을 대할 때, 그리고 상전을 대할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기도를 계속하라는 얘기는, 남편을 대할 때도 기도를 계속하라는 얘기입니다.
남편을 대할 때 우리는 남편이라는 대상을 마음이 확보하게 됩니다, 남편이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근데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계속하려면, 남편과 대화하는 가운데 마음은 하나님의 대상성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신병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마치 형사가 중무장한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서 총을 들고 집중해서 들어가듯이.
그러니까, 남편과 대화하고 아내와 대화하고 부모와 대화하고 이런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의 집중은 어디를 향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 향해야 된다 이겁니다, 계속 기도해야 되니까, 계속.
남편 때문에 잠깐 중단하고, 부모와 대화할 때 잠깐 중단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계속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려면, 삶의 문제에 대한 마음의 시선이 거두어져야 됩니다.
참~ 이게 어떻게 하나 궁금하지요 그렇죠?
근데 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의 시선이, 이 세상 삶의 문제나 이 세상사람 대상들에 대해서 거두어져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대상으로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모든 문제들이나 모든 대상들은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대상성을 확보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상대자로서 확보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궁극적인 구원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삶에서 기도를 계속 하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자로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상대자로 만나기 위해서는 주님을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주님을 통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통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마음에서.
그리고 내가 죽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은 하나님 앞에 마주서면서, 십자가를 보고 있는 동안에 동시에 마음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그리스도의 신비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 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리스도의 신비, 이 그리스도의 신비, 그리스도의 비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죽었다는 고백을 하면서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동시에 마음에 이 세상 모든 내 삶의 영역, 영역마다 가득 차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 '기도를 계속하라' 그런 다음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하는 중에 깨어 있으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어떻게 깨어 있느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깨어 있기 위해서는, 이게 생리적으로 졸지 말라는 말씀이라면,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게 아니고, 감사하면서도 '감사합니다~' 하고 졸 수 있잖아요.
주여 삼창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생리적으로 졸음을 깨려면?
아니면, 일어나서 박수치면서 춤추면서 찬양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얘기, 이게 뭐로부터 깨어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에요.
우리가 기도하러 가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 세상의 문제 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한테는 사람들이 기도제목을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권사님은 사람들의 세상문제에 대한 기도제목 리스트를 보면서, 쭉~ 읽어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 생겨서 내 마음을 잡아끌고 있는 세상문제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깨어나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 삶에서 주어져 있는 세상문제에 내 마음이 휩쓸려 있고, 묶여 있고, 취해 있는 동안은 절대로 하나님의 신병확보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상대자로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와 내 문제로 인한 내 기분에 취해 있지 말고 거기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듯이, 내 문제에 대한 내 생각과 걱정과 염려와 내 기분으로부터, 내 마음의 분위기로부터, 완전히 깨어 나오라는 얘기에요.

근데 왜 감사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자!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지속됩니다.

3분이고 5분이고 지속되다 보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보입니다, 세상 만물에.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지금 한참 빠져 있던 그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닿아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근데 그게 문제로 느꼈던 거는, 내가 그 문제에 닿아 있는 하나님의 손 속에 있는 의도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속내를 내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붙잡고 계속 이렇게 십자가만 보고 있노라 보면, 문제를 보지 않고 십자가를 보는 겁니다, 마치 형사가 범인을 검거하려고 할 때, 아내에게 들었던 돈 문제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자식 문제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범인을 보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집중을 하면, 문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보이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딱 마주대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감사입니다.
이상한 거지요, 십자가를 보고 있으면서, 내 마음이 살아 계신 영이신 하나님과 마주대할 때, 영이신 분인데 보여요.
영이신 분이 내 마음에 보이면서 제일먼저 나오는 게 감사인데, 이 감사에는 경계선이 없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를 하나님을 보면서 보면, 원수가 내게 있음이 감사로 나옵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마주대할 때 내 마음에서 느껴지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사랑의 덩어리로 느껴집니다. 사랑 그 자체세요.
그리고 다윗의 시처럼 내 모~든 것을 뼛속까지 깊이 알고 계신 것이 확신이 됩니다.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분께서, 살아 계시면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주어진 문제들과 원수들, 다 감사의 대상입니다.
이게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상태의 기도라는 거예요.

내 문제에 묶여있는 분위기로부터, 내 문제에 취해 있는 내 삶의 문제에 내 마음이 가득 취해 있는 거예요, 지금, 술 취한 것처럼 돈 문제 취해 있어 가지고 돈, 돈 하는 겁니다.
자식 문제에 취해 있어 가지고, 자식, 자식 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자식에 대해서 죽고, 돈에 대해서 죽고, 내 건강에 대해서 죽고, 팔짝 깨어나면은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게 될 때 나타나는 일이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문제의 분위기로부터 내 마음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외인을 대할 때 지혜롭게 대함으로써 세월을 아끼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외인이라는 것은 교회 밖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불신앙인들을 말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 너머에 있는 제로-랜드,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십자가 너머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만들어 놓으신 그 빛의 터널, 공중에 뚫린 그 빛의 터널, 그곳에 마음을 두지 않은 모든 사람이 다 외인입니다.
근데 이 외인들과 얘기할 때, 지혜로 함으로써 세월을 아끼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김 집사님이 자식 문제 때문에 고민을 털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김 집사님의 자식 문제에 대한 절대적으로 선한 결론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이제 그 문제를 놓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자식에 대한 경험을 얘기하면 김 집사님의 자식 문제에 대한 선한 결론으로 도달할 수 있습니까?
자식 양육에 대한 전문서적을 읽으면 됩니까?
자식 양육을 위한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하면 됩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다~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겁니다.
지혜가 뭡니까?
마음이 제일 먼저 백설 같은 마음으로, 그 어떤 것에도 장악되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가 있으면서, 마음이 하나님과 조합을 이룬 상태에서 세상의 문제를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나는,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 동안에, 형사가 범인을 검거 하듯 하는 그런 집중력으로 하나님의 대상성을, 지금 김 집사님이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가 있으면서, 김 집사님이 얘기하는 자식의 문제를 바라볼 때, 여기서 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의 내용이 거의 뭘까요? 똑같아요, 하나입니다.
김 집사님에게 뭐라고 얘기 하냐면, '자식의 문제로부터 나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빠져 나와서, 하나님의 대상을 확보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식의 문제를 계기로, 왜 계기입니까?
자식의 문제가 없었으면 자식의 문제에 대해서 죽을 수도 없었으니까, 자식의 문제에 대해서 죽으면, 자식에게 빼앗겼던 마음만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자식이 내 마음에 들어왔던 것만큼 대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사업 문제도 마찬가지에요.
이게 바로 해결이고 해답입니다.
사업 때문에 걱정이면 지혜자의 말은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사업에 대해 죽고 사업에 마음 빼앗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사업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부분만큼을 하나님으로 채워서, 돈 벌어 부자 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부자 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신병을 확보한 사람으로서, 똑같이 세상 문제에 취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병을 확보하도록 말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시간이 허비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사업 문제, 자식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이 사람이, 자식 문제, 사업 문제에 취해 있는 마음에서부터 깨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답을 얘기하지 못하고, 한 번 이렇게 길러 봐 저렇게 길러 봐, 사업을 이렇게 해 봐 저렇게 해 봐 해 갖고, 사업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는 것은 시간 낭비라 이거에요.
시간 낭비, 세월이 허비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혜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마음이 조합한 상태에서, 그 분에게도 다른 외인들에게도 똑같이, 자기 문제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대상성을 확보하라는 권고의 말씀을 하게 될 때,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튕겨져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전해야 되니까.
이때 십자가를 받아 들여서 자기 문제에 대해서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상성을 확보하려고 마음을 돌리는 사람, 세상 등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순간에, 이 사람의 문제, 이 사람이 등 돌린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철컥 놓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인격적으로 아버지로서 만나주시는 그 아버지하나님의 손에 철컥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해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해결이라 그러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는 것이 해결인데, 돈 문제가 있으면 돈 문제에 등 돌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돈 문제의 해결인데, 맨날 돈 문제를 안고 철야기도하자 그러는 거예요, 40일 작정기도를 하자 그러는 겁니다.
결코 내 문제의 분위기에서, 술 취하듯이 내 문제에 취해 가지고, 하나님의 대상성을 확보를 못하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위아래가 있습니까, 술 취하면?
아버지한테도 '야 네가 나를 낳으면 나았지 네가 내 아버지면 다야?' 이러고 달려드는 게 술 취한 상태 아닙니까? 대상이 없는 거예요 대상이.

그냥 내 속에 있는 걸, 그동안 쌓였던 걸 토로해 놓는 거지.

내 문제에 취하는 것도 술 취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대상이.
'나 이거 돈 없는데 말이야 이거, 나 이거 병 걸렸는데 말이야 이거, 내 병 이거 언제까지 놔둘 거야? 이거, 세상이 뭐 이래 이거, 하나님이 있다면서 말이지, 나 이거 나 이렇게 괴롭혀? 술주정하고 있는 겁니다, 술주정.
그래서 기도라는 거는 십자가로 깨서, 하나님의 신병확보, 객관적인 하나님의 대상성이 확보돼서, 하나님을 마주 대하고 상대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로 깨어나서 기도하다 보면, 그 증거가 뭐냐?
내가 지금 내 문제에 취했던 상태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증거가 뭐냐?
감사가 나오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그렇게 문제로만 보였었는데, 야~! 이 문제를, 이렇게 깊은 의도를 갖고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감사가 나올 때,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이 얘기지요.
그것이 또한, 세상을 보는 지혜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형사가 중무장한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모든 세상 문제를 다 잊고 범인이 눈에 보이기만을 바라며 한 걸음씩 진격해 들어가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신병확보를 할 수 있기 위하여 십자가에 집중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